강진 '전남음악창작소' 본격 활동 돌입

공모사업 선정돼 음반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신규 프로그램 1인 미디어 교육사업 '강진 문화 보부상' 운영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임석)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2천만 원의 사업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음악창작소의 지역 뮤지션 육성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음악창작소의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사업은 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지원해 실험적인 음악을 창작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남도의 국악과 타 장르의 이색적 혼합을 시도한 음반 제작을 지원해 음악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남음악창작소는 '2019년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주목할 만 한 신규 개설 프로그램으로는 '강진 문화 보부상' 사업이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됨에 따라 콘텐츠를 생산 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의 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과거 강진 병영 보부상의 상인정신을 토대로 강진의 문화, 관광, 특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강진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 나간다.

또 강진의 풍물패와 밴드가 함께 연주하는 '강진아리랑' 등 군민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크로스오버 음악 교육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 석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올해는 크로스오버 음악과 더불어 대중음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음악인들에 대한 창작 지원의 폭을 넓혀 지역 문화지수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음악창작소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신청은 음악장르에 관계없이 전남·광주지역에 사는 뮤지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오는 12일까지 전남음악창작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ogamtong.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전략 과제 선정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28개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신우철 완도군수가 직접 주재한 가운데 해양치유산업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12개 부서, 22개 팀장이 28개 전략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해양치유산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전략 과제는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해양치유 대상지 해양 환경과 주변 청결 대책, 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방안과 대표 음식 개발 등이다.

특히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중심지이며, 국내 최초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만 주어지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한 신지명사십리 해변의 해양쓰레기 처리와 안전 관리 등 해양치유 블루존 관리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해양 자원 보전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깨끗한 해양환경 관리와 도로 주변, 공공 화장실 등 청결한 환경 만들기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무안군, 가축 폭염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 강화

무안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비 15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축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폭염이 장기적으로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은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 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 예방시설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아울러 가축폐사 및 생산성 저하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축종별 주요 관리 요령은 소의 경우 환기창이나 통풍창을 크게 설치하여 공기를 순환시키고 천장이나 벽에 열막이 재료를 부착하거나 지붕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춰야 한다.

돼지는 차광막과 송풍시설로 기온을 낮춰주고, 기호성이 높은 사료를 공급해야 하고 닭의 경우 간이 계사는 스티로폼 등으로 열막이 처리를 하고, 적정 밀도 유지 및 무더운 한낮에는 지붕 위로 물을 뿌려 복사열 유입을 막아야 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가축들의 물 먹는 양이 많아지므로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폭염 대응 가축 관리 요령 등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축산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명품 피서지 '영암 氣찬랜드' 개장

오는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운영…개장 준비 총력

영암군은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명품 피서지 월출산 氣찬랜드가 오는 13일 초청가수와 함께 성대한 개장식을 갖고 8월 25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 좋은 호평을 받아 14만명이 찾아온 명품 피서지로 서 기찬랜드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자 시설물 정비와 안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개장 준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올해는 야외·실내 물놀이장 정비 등을 위해 551백만원을 투입하여 임시주차장 조성 및 데크보수, 도색 및 탈의실 설치, 노후간판 정비와 CCTV 증설 등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물놀이장 시설정비 및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중요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일 물놀이장 개장 전?후 환경정비에도 신경 쓰기 위해 고압 세척기로 수조를 청소하며 수시로 오물을 수거하는 등 깨끗한 수질과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물놀이장의 수심도 40cm~110cm를 유지해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길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70명과 보건소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영암경찰서 및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비상시 응급대처가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지부장 오정현)에서 군민의 문화향유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음악회 공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여 기찬랜드 개장기념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3일 개최되는 월출산 氣찬랜드 개장식에는 강진, 박상철, 김용임, 배일호, 박구윤, 하동진, 신수아 등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이 진행될 예정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준비하여 방문객의 흥을 한껏 북돋을 계획이다.

한편, 금정 뱅뱅이골 氣찬랜드도 13일 개장을 위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물놀이장과 정자·평상·주차장·샤워장 및 매점 등 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비중이며,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하고 활성산 계곡물을 사방댐에 저장하여 계곡 및 물놀이장에 공급하는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해남군, 지방재정 확대 '우수지자체' 선정

해남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대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지방재정의 지출 확대를 이끌어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해남군은 재원규모 등이 비슷한 군단위 82개 지자체 중 가장 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경의 시기와 규모, 일자리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8개 평가 지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남군은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당초 예산 대비 1,633억 원을 편성,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목포시,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본격 돌입

차량구입비 모금 마무리

목포시가 생활위생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가 차량구입비 모금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참여로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부터 지역 기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차량 구입비를 모금해 왔는데, 최근 기탁액이 당초 목표액 9,300만원 보다 2,100만원 초과한 1억 1,400만원으로 최종 집계되어 모금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훈훈한 마무리의 주인공은 IBK기업은행으로 그동안 모인 모금액이 차량구입액에 미치치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3일 4천만원을 지정기탁함으로써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에 힘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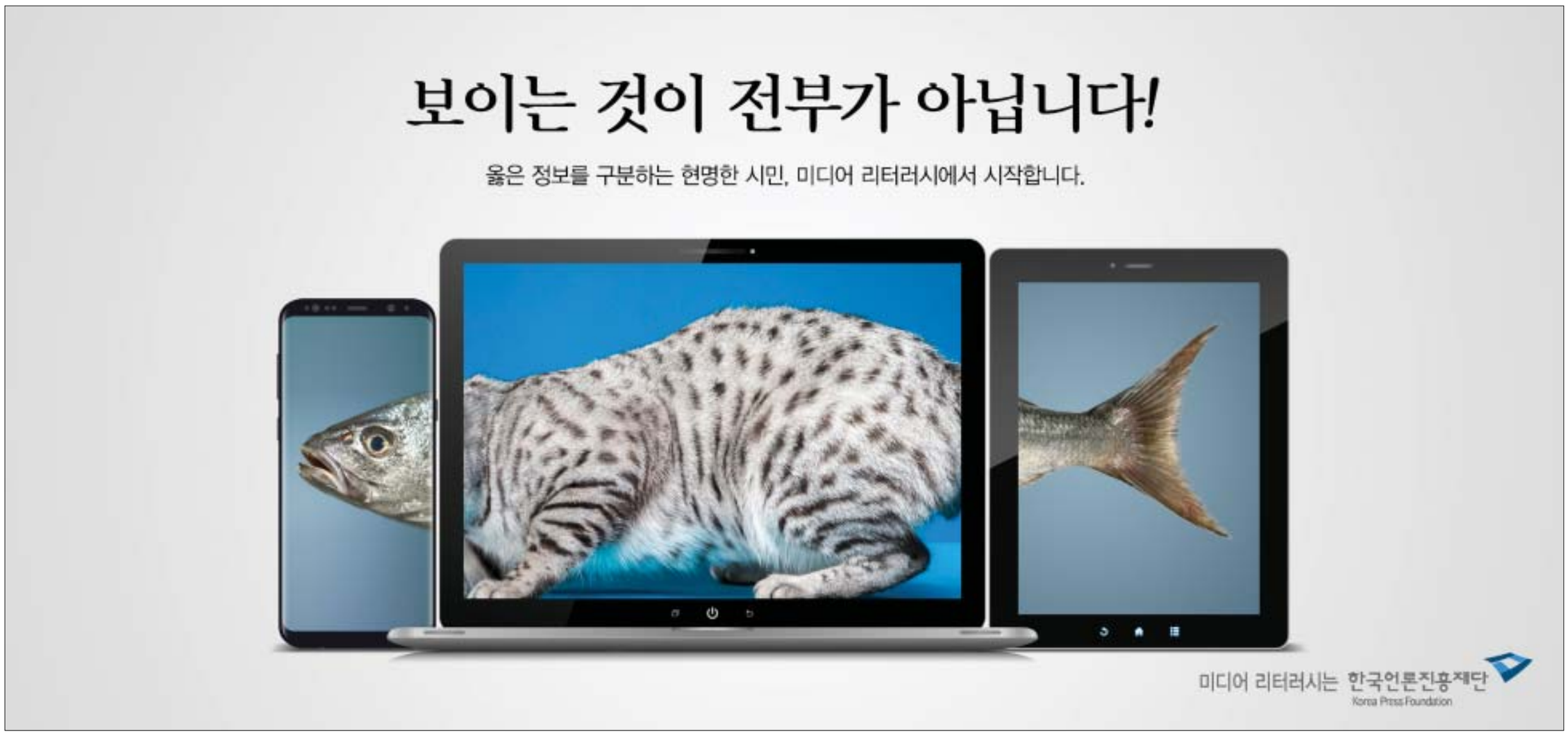
진도군, 멋·맛이 공존하는 팜파티 호평

진도군이 최근 진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 40여명을 초청해 1박2일 동안 진도의 멋과 맛을 알리는 팜파티를 개최해 큰 호평을 받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팜파티는 진도에서 재배되는 부지화인 '황금봉'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도농교류 촉진과 함께 지역 농산물 신뢰 증진 등 진도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개최했다.

이번 팜파티는 진도군정보화농업인연합회가 주최해 지산면 삼당마을 황금봉 농장에서 열렸으며, 진도 황금봉을 도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직접 농장을 체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또 전국 각지에서 온 도시민들이 진도의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를 만끽 할 수 있도록 1박2일간의 일정 동안 ▲진도 문화를 알리는 음악회 ▲농산물 판매와 농장 체험 ▲도자기 제작 체험 ▲고객과 화합 한마당 ▲운림산방, 세방낙조 등 진도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담당 관계자는 "팜파티 행사를 통해 도농교류가 촉진되고 진도 농산물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